

일본어 중등교원의 교수 환경에 관한 연구

- 중등교원 하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김 활 란

(여주대학)

1. 머리말

본고에서는 2009학년도 중등교원 하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일본어교사를 대상으로 일본어교육 관련 모임과 연수프로그램, 수업 환경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하는 교재, 그리고 일본 문화 교육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해 설문조사했다. 2006년도 전국4년제 대학 11개교에서 일본어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동기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1위가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28%를 차지했다.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문화 관련 수업 여부와 교사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조사하고자 했다.

설문조항은 일본문화 교류 항목과 영상교재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일본어 교육의 학습 환경과 학습수단에 관한 조사연구’¹⁾와 ‘NINA 연구보고서’²⁾등

1) 『日本語教育の学習環境と学習手段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国立国語研究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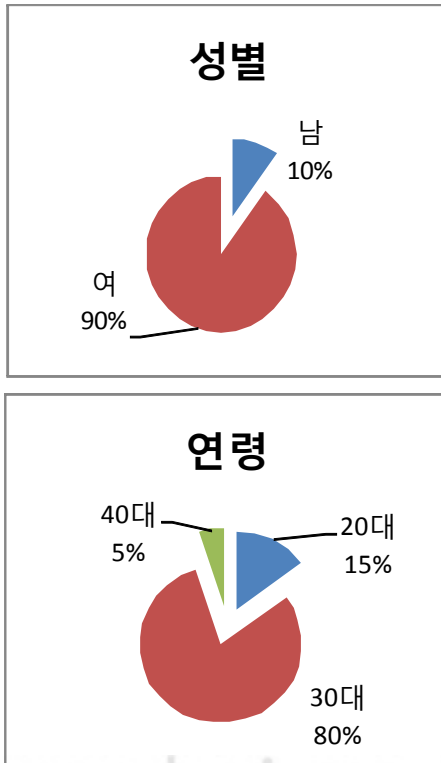
2) 『NINA 研究報告書』, 『日韓の文化交流を深めるための日本語テレビ・ビデオ教材の研究と開発』, 総合研究開発機構, 2002

을 참고로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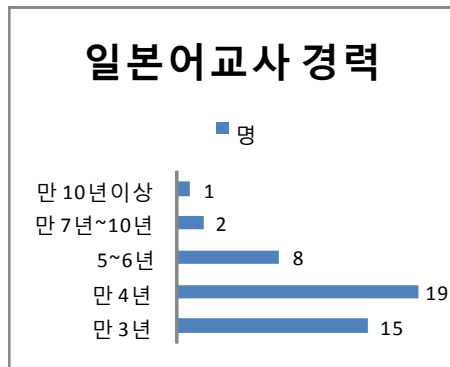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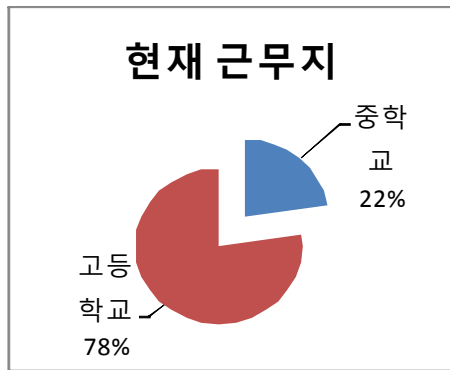
II. 조사의 개요

1. 연구 대상과 조사방법

2009학년도 중등교원 하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일본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기간 중에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2009년도 8월 7일에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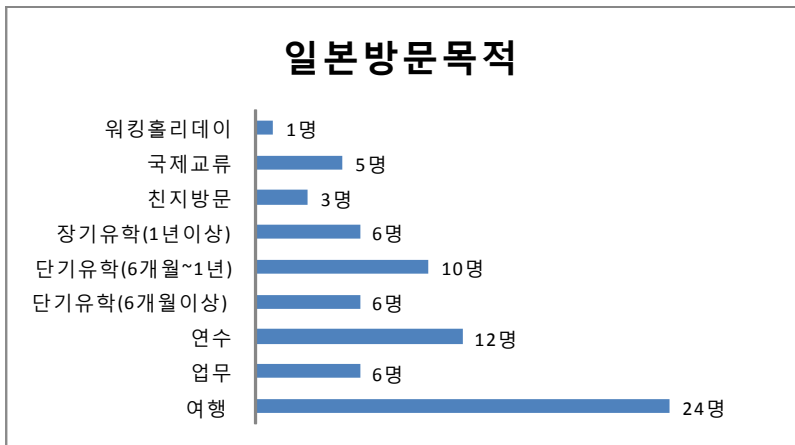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는 연수과정에 참가한 총 40명(남자 4명, 여자 36명) 전원이 응해주었다. 연령대는 20대가 6명(15%), 30대가 가장 많은 32명(80%), 40대는 2명(5%)이었다. 현재 근무지는 중학교 9명(22%), 고등학교 31명(78%)이다. 일본어교사 경력은 만 3년은 15명(33%), 만 4년은 19명(42%), 만 5년~6년은 8명(18%), 만 7년~10년은 2명(5%), 10년 이상은 1명(2%)이었다.



그리고 현직 일본어교사들이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현지 연수교육이나 일본 방문 교류 등으로 얼마나 일본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문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사 본인이 현지경험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중에 한 명을 제외한 39명이 모두 일본을 방문

한 경험이 있었다. 39명 중에 방일목적(복수대답 가능)을 살펴본 결과, 여행이 24명(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업무 6명(8%), 연수 12명(17%), 단기유학(6개월 정도)은 6명(8%), 단기유학(6개월~1년)은 10명(14%), 장기유학(1년 이상)은 6명(8%), 친지방문 3명(4%), 국제교류는 5명(7%), 워킹홀리데이는 1명(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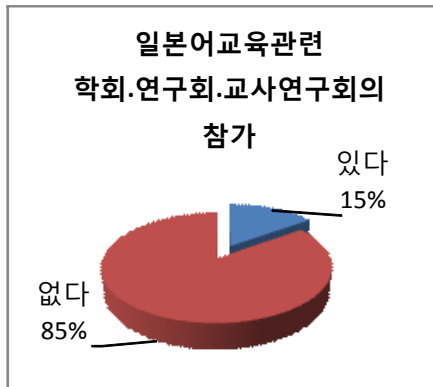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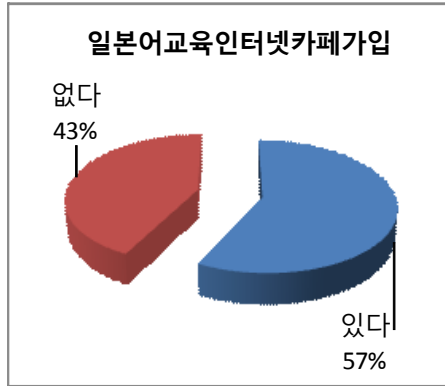


III. 조사결과 및 고찰

1. 일본어교육 관련 모임과 연수프로그램

일본어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동호회)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물었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23명(57%), 활동하지 않는다는 17명(43%)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교사가 많은 편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페는 JTA(일본어교사모임, www.jteacher.net)였다. 그리고 현재 정기적으로 일본어교육에 관한 학회, 연구회, 교사회 등에 참가하는지를 물었다. 참가한다는 6명(15%), 참가하지 않는다는 34명(85%)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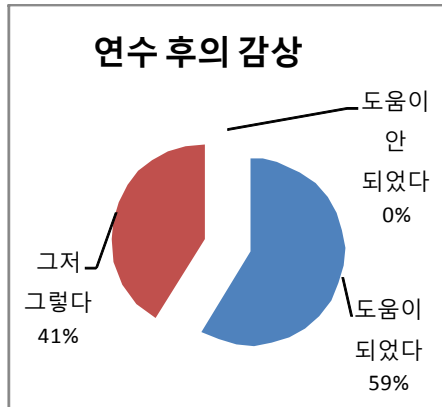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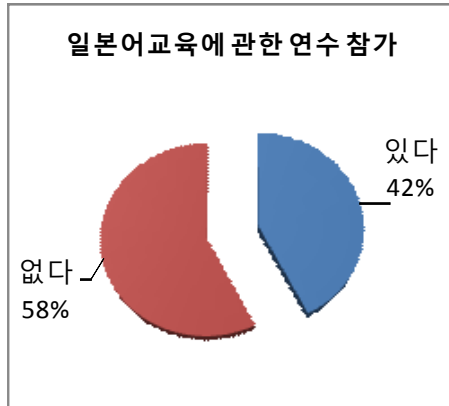
의외로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참가하는 학회나 연구회로는 한국일어일문학 회, 일본어교육학회, 경기도 일본어교사 연구회, 충북일본어연구회, 그리고 JTA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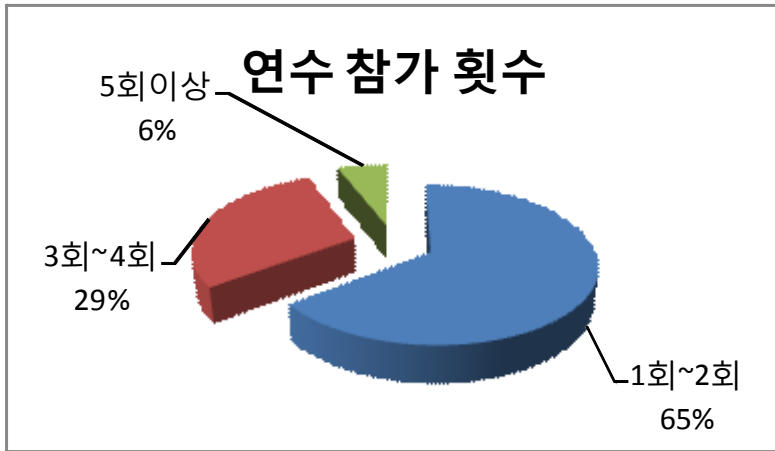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는 17명(42%),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23명(58%)으로 연수경험을 한 교사가 많지 않았다. 연수 참가자에게 일본어 교육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도움이 되었다는 10명(59%), 그저 그렇다는 7명(41%)이 차지했다.

대부분 국제교류기금에서 실시하는 일본어교사연수프로그램과 경기도 외

국어교육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일본어 연수프로그램, 경기도 중등 일본어교육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가 많았다.



그리고 연수 참가 횟수에 대한 질문에 1회~2회는 14명(65%), 3회~4회는 7명(29%), 5회 이상은 1명(6%)이었다. 연수에 참가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연수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교수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사들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그리고 현재 교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본어교육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실제 수업에서 사용가능한 다양한 교수법과 교수 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우수한 실제수업의 예를 직접 보면서 실제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방법, 즉 학생 중심활동의 교수법, 즉 교실활동과 협력학습, 모둠활동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직교사와 경력교사들의 노하우, 그리고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최근의 교수법에 관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자주 실시된다면 일본어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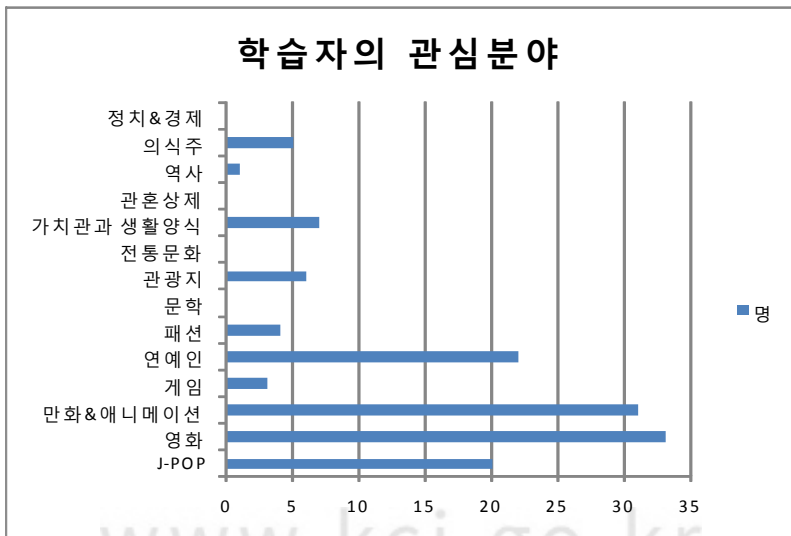
그리고 시간적, 금전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 현지에서 일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원했다. 그리고 아직 회화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의 회화 연수 기회, 또는 한국 현지에서의 원어민과의 회화 연수를 희망했다.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수, ICT를 이용한 교재와 수업자료 개발에 관한 연수, 문항제작방법과 수업 시 closing기법, 레크레이션 활동, 간단하게 작성 가능한 교재작성활용법이나 좁은 교실에서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게임 등을 배우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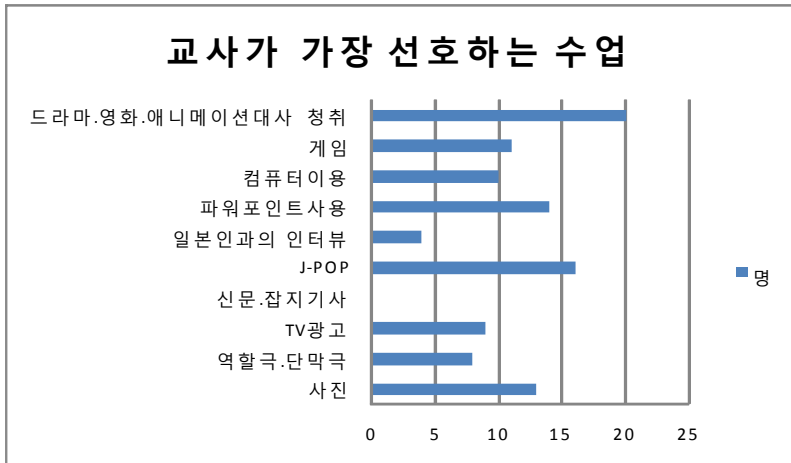
교사들은 각종 연수나 수업에서 배우고 접하는 교수법들은 매번 재미있고 멋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교실활동에서는 담당교원 수, 담당학급 수, 학급 당 학생 수, 학생들의 일본어 수준, 학생 성향, 수업외의 업무량, 학교 관리자의 마인드 등의 복잡한 요인에 의해 실제 적용 가능한 교수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점을 반영한 재미있는 교수법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2. 학습자의 관심분야와 교사가 선호하는 수업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위는 영화·드라마로 33명(25%), 2위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31명(23%)이었다.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3위로 22명(17%), 4위는 J-POP(일본가요)로 20명(15%)이었다. 그 외 일본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7명(5%), 관광지는 6명(5%), 의식주는 5명(4%) 패션 4명(3%), 게임 3명(2%), 역사는 1명(1%)이었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문학과 관혼상제, 전통문화, 정치·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본어수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위는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대사 청취연습으로 20명(19%), 2위는 J-POP(일본가요)으로 배우는 일본어로 16명(15%),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수업이 14명(14%), 사진을 이용한 수업은 13명(12%), 게임을 이용한 수업은 11명(11%),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은 10명(10%), 그 외에 TV광고를 이용한 수업은 9명(9%), 역할극은 8명(8%), 일본인과의 인터뷰는 4명(4%)이었다. 신문·잡지기사 독해 수업은 단 한 명도 원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동요나 쉽게 노래(인사 송, 다코야키 송, 도시락 송 등),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문화 배우기 등도 있었다.



3.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23명(57%), 불만족스럽다는 17명(43%)이었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중학교와 다양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재에 대한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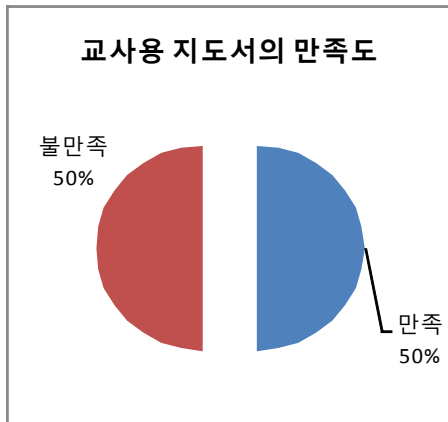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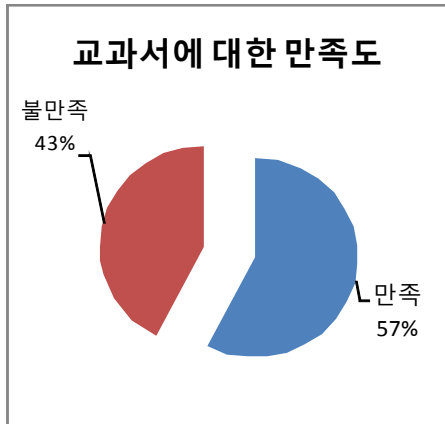
가. 한 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법이 너무 많다, 지나친 문형 위주라서 가르치

기 힘들다

- 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화가 부족하다.
- 다. 시대에 뒤떨어진 너무 오래된 자료가 많다, 활동부분이나 문화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 라. 사진 등 문화에 관한 볼거리가 부족하다.
- 마. 체계적이지 못하고 문법 수준이 높고 활자가 지나치게 작다.
- 바.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 사. 어휘나 내용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 아. 학습초기부터 너무 많은 내용이 등장한다,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다.
- 자. 같은 과에서도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의 차이가 크다
- 차. 가르칠 내용이 너무 적다, 좀 더 알찬 구성을 원한다.
- 카. 짜임새 있는 수업을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20명(50%), 불만족스럽다는 20명(50%)으로 반반으로 나뉘었다.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문법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교실활동이 너무 없다.
- 나. 실제 지도 시에 필요한 부연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
- 다.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라.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 마. 다양한 설명이 부족하다
- 바. 단순한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 해주기를 원한다.
- 사. 그다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
- 아. 자료가 별로 없다.
- 자. 별로 안 본다.
- 차. 난이도가 크게 바뀐다.
- 카. 구성이 좋지 않다.
- 타. 너무 형식적인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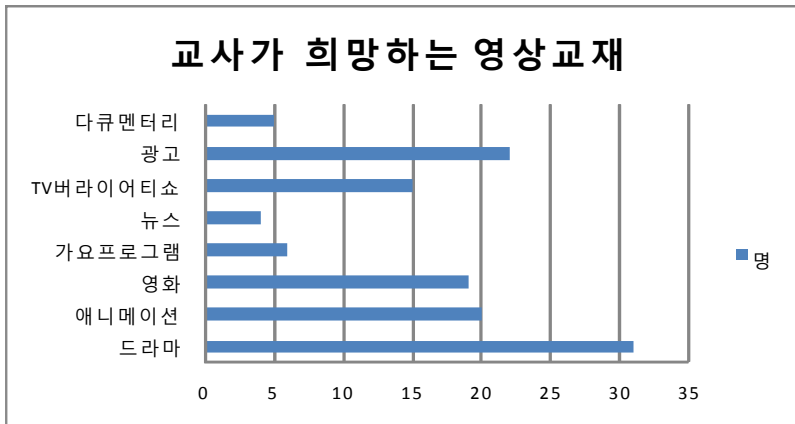
위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교재에 실린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여 실용적이지 못하며, 체계적인 구성이 부족하여 문법의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해마다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재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실성이 결여된 교재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희망하는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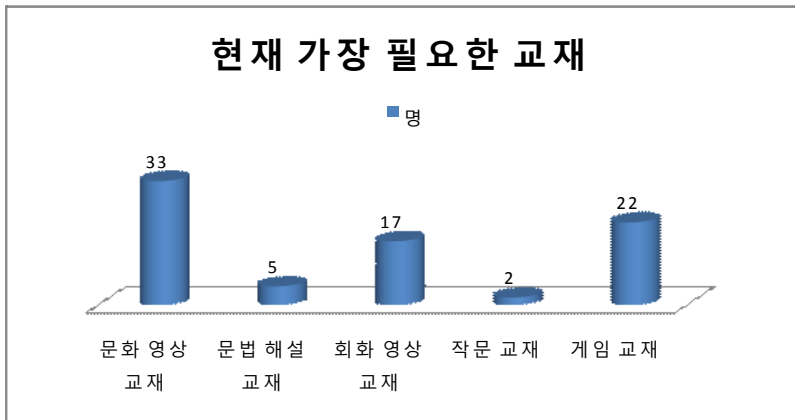
교사들이 희망하는 영상교재는 다음과 같다.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위는 드라마로 31명(26%)이었다. 역시 학습자들의 관심분야와 일치했다. 의외로 2위는 22명(18%)이 선택한 광고였다. 내용이 짧고 강렬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위는 애니메이션으로 20명(16%), 4위는 영화 19명(16%), 5위는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가 15명(12%)이었다. 그 외 가요프로그램이 6명(5%), 다큐멘터리는 5명(4%), 뉴스는 4명(3%)이었다.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재에 관한 질문에서도 문화 관련 영상교재가 33명(42%)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어 설명이 함께 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영상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교사들이 직접 영상을 찾아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위는 게임 교재로 22명(28%)이었다. 게임을 통해 재미와 더불어 학습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교재를 희망했다. 그 외에 회화 영상 교재는 17명(21%), 문법 교재 5명(6%), 작문 교재는 2명(3%)이었다.

앞으로 한국의 많은 일본어교사들이 게임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재 편성작업과,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 실시되어진 정규 교과목으로서 외국어(영어)수업의 특징은 학습자와 교사가 같이 호흡하는 의사소통중심의 수업과 게임, 노래, 율동, 역할극 등을 도입한 활동중심의 수업 속에서 성장해온 학습자들임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방법과 학습자들의 습득방법론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게임을 도입한 수업의 본질과 교육현장 속으로 폭과 깊이를 겸하여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게임을 도입한 수업의 평가방법론을 확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게임을 도입한 수업개발을 위한 연구자들의 저변확대와 함께, 한국의 외국어학습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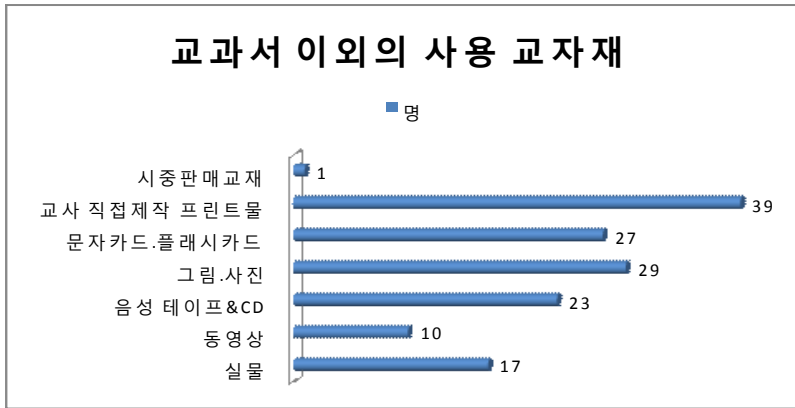


5. 교자재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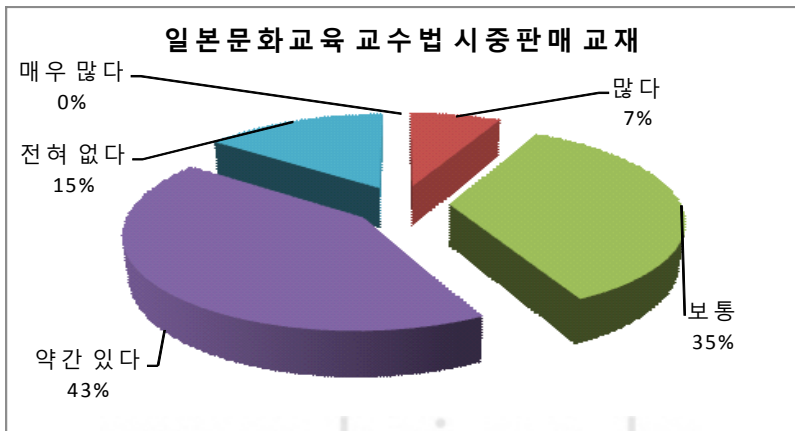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지정된 교과서 이외에 어떤 교자재를 사용하는 지 물었다. 교사가 직접 만든 프린트 물이 39명(27%), 그림·사진이 29명(20%), 문자카드·플래시 카드는 27명(18%), 음성 테이프나 CD는 23명(16%), 실물자료는 17명(11%),

3) 이장우, 「게임授業이 學習者에게 미치는 影響과 新學習者를 爲한 教授方法에 關한 研究」, 『일어일문학』제24집, 2004, p.1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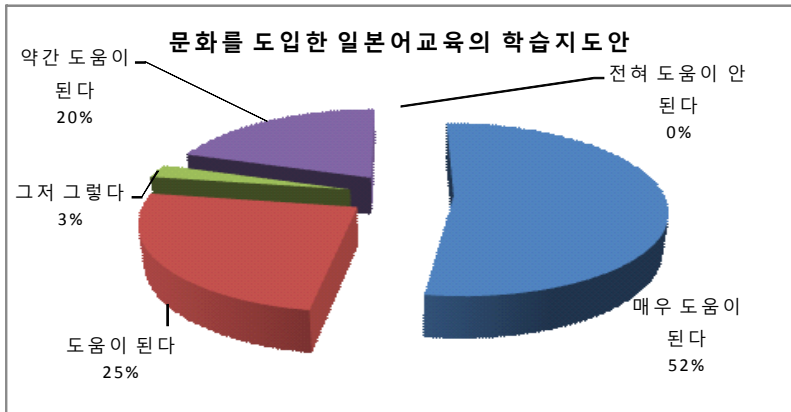
비디오·동영상은 10명(7%),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는 1명(1%)이었다.



그리고 시중에 일본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본문화 관련 교수법에 관한 교재가 많은 지에 대해 물었다. 약간 있다는 17명(43%), 보통이라는 14명(35%), 전혀 없다는 6명(15%), 많다는 3명(7%), 매우 많다는 0명이었다. 문화관련 도서는 꽤 있으나 문화교육과 관련된 교수법 관련 교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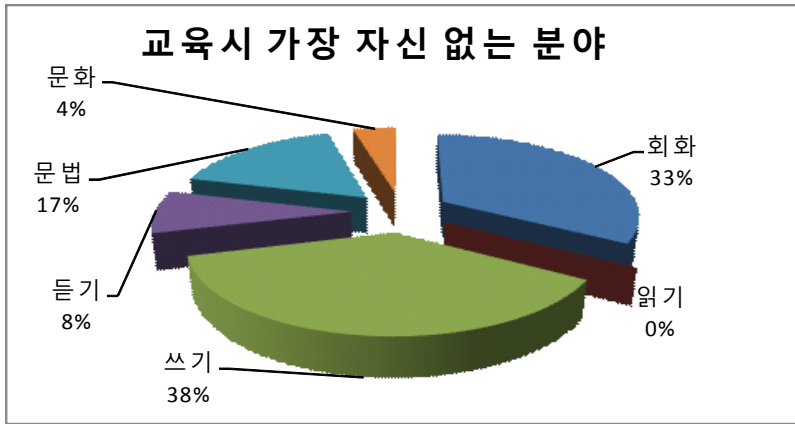
이번 연수에서 과제로 작성한 ‘문화를 도입한 일본어교육의 학습 지도안’과 같은 교재가 만일 있다면 교사들의 일본어와 일본 문화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는 21명(52%), 도움이 된다는 10명(25%), 약간 도움이 된다는 8명(20%), 그저 그렇다는 1명(3%),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0명이었다. 연수기간 동안 독창성과 구성력, 학습효과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문화를 도입한 일본어교육의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주제는 자유였다. 교사들이 선택한 주제를 살펴보면 에키벤, 오미야게, 운세, 연중행사, 화폐, 스모, 식사예절, 하나비, 신사, 천황, 교통수단, 결혼식, 문화유산, 축하표현, 전통의상, 캐릭터, 일본음식, 오리가미, 화투, 고이노보리, 일본인의 언어표현, 유카타입기, 광고, 생활일본어, 목욕문화 등이었다.



6. 교사에 관한 질문

일본어를 가르칠 때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결과를 보면 의외로 쓰기가 17명(38%)으로 가장 자신 없다고 했다. 작문 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사도 있었다. 두 번째는 회화로 15명(33%), 문법은 8명(17%), 듣기는 4명(8%), 문화는 2명(4%)이었다. 읽기는 단 한 명도 선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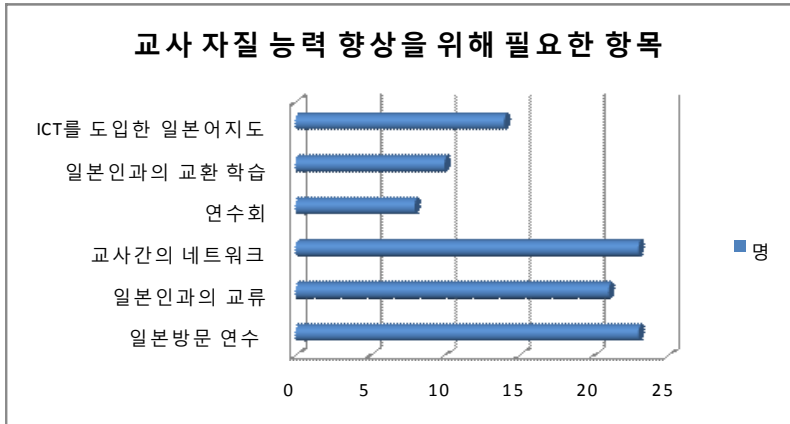
지 않았다. 그만큼 읽기에는 강한 면을 보였다. 교사들을 위한 인터넷 공간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쓰기 실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지역 간 교사들의 스터디그룹 등을 활성화하여 쓰기와 회화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의 작문과 회화 교육을 위한 꾸준하고 장기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앞으로 교사의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물론 복수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방문 연수는 23명(24%), 교사간의 네트워크도 23명(23%)으로 공동 1위였다. 일본인과의 교류는 21명(21%), ICT를 도입한 일본어지도는 14명(14%), 일본인과의 교환 학습은 10명(10%), 연수회는 8명(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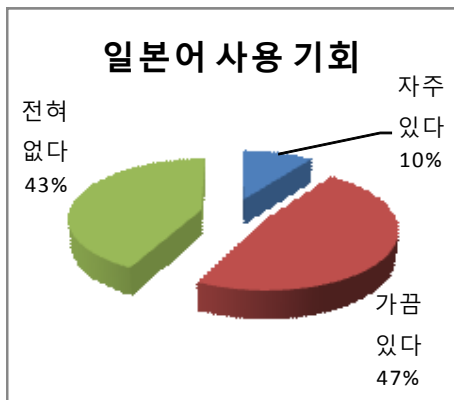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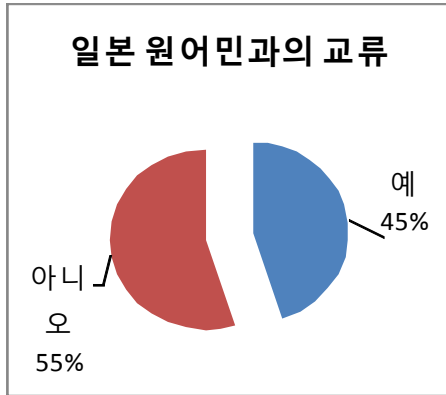
역시 현지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만큼, 교사의 해외 탐방 연수 또는 어학연수의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 중등교육기관의 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교사 및 일본인 일본어교사에 대해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인 일본어교사에 대해서는 수업과 이문화 적응, 외국어에 관한 지식과 학습경험을 요구했지만, 한국인교사에 대해서는 수업과 병행해서 학습자의 이해까지 요구했다.4)



평소에 일본인과의 교류는 있는지를 물었다. <예>라는 대답은 18명(55%), <아니오>는 22명(45%)이었다. <예>라고 대답한 교사들은 대개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교사,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는 일본인, 교류추진 중인 현지 일본교사, 유학시절의 친구 등이었다. 평소에 일본어 사용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자주 있다는 4명(10%), 가끔 있다는 19명(47%), 전혀 없다는 17명(43%)으로 일본인과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행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4) 佐藤綾, 최영숙, 高木裕子, 『한국 중등교육기관의 한국인 일본어교사의 실천능력』-교사 경험 5년 미만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 『일본어문학』제43집, 2008, p.257-260.



7. 일본문화 교육에 관한 의견

마지막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의 일본 문화 교육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교육여건 상으로는 문화수업과 같은 실질적인 일본 이해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입시나 학교방침 등 수업 환경에 의해 문화교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실 상황과 넘쳐나는 학생 수(많은 계는 한 클래스 당 50명)와 한정된 시간, 또 평가라는 부분을 극복할 수 없다. 수업시수나 열악한 수업교실의 환경(너무 많은 학생 수, 멀티미디어 자재

부족 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수능 중심으로 가다보니 문화를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어떤 교육이든 입시와 무관하면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학습자가 받아들일 의지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문화교육을 살리려면 입시와도 많은 연관성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현재 인문계 교실에서는 효율성 있는 다양한 체험 수업은 곤란한 점이 많다, 하다못해 학교장 방침에 따라 영상조차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동 교과 과목의 다른 교사와도 의견이 맞아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셋째. 현실적으로 중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만 전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넷째. 방과 후 학교나 CA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섯째. 문화체험, 게임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간 문화교재가 발간된다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대학에서처럼 따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고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등학교에서 사용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현재 수업시간에 일본문화 소개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잘 정리된 자료를 필요로 했다. 아무래도 동영상 쪽이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주입식으로 수업을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학생들은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한다, 뭔가 흥미 있고 활동적인 체험 위주의 수업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흥미유발’이 일본어 교육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가끔 문화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문화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가르치다보면 특히 전통문화를 너무 많이 가르친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문화수업 지도안 보다는 사진이 많이 들어간 활동지 중심의 교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일곱째. 원하는 문화 관련 자료나 영상물을 구하기 힘들고 많이 부족하다. 수요는 많은데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교사가 생각에만 머무르는 상황이다. 언어행동과 관련된 설명이나 영상물이 부족하다. 문화교육이

거의 영상교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한정되어 있고, 학습의 관심이 다양하지 못해 특정분야(애니메이션, J-POP, 드라마)만 선호하게 된다. 일본 문화 중 역사, 지리 관련된 수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딴양한 방면의 자료가 있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사진자료는 많이 모았지만 영상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출판물이나 영상자료 등 문화관련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여덟째. 교사들을 위한 해외 연수의 기회 확대와 1년에 한 번 정도 지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외에도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일본문화와 관련된 교육 매뉴얼과 자료를 보급, 대여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교재의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 교사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2009학년도 중등교원 하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에 참가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일본어교사를 대상으로 일본어교육 관련 모임과 연수프로그램, 수업 환경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하는 교재, 그리고 일본 문화 교육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해 설문 조사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관심 분야는 영화·드라마가 1위였으며,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역시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대사 청취연습이었다. 희망하는 영상교재 또한 1위가 드라마였다.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의 가입으로 쉽게 일본 드라마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일본어 학습동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와 드라마와 관련된 영상 자료는 예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본 문화 관련 영상교재는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개발이 시급하다. 자료를 마련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중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교사 연수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의식, 주입식 방식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현장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학습자 주도적 학습 환경이며 교육과 현실을 연계한 학습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⁵⁾

교원 연수과정은 학교 현장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개설되는 것이다. 즉 교원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한 교수-학습방법은 그 이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하나의 모델 학습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수과정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교원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기회가 제한되어 연수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연수는 집합제도에 의해 대부분 방학 중에 집중되어 있어 교사가 원하는 연수시기와 시간에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기 중에도 원하는 시간에 부담 없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교원연수의 대부분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수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의 연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제학습, 협의 및 토의, 사례발표, 협동학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원연수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교원연수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용은 교사의 교실수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과정과 교육현장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⁶⁾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기관 등에서 실질적인 교수법 시연 수업 등이 이루어져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할 수 있다. 연수프로그램 참가자가 많을수록 교육현장에서는 생생한 일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서 학

5) 맹영하,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블랜드드 모형에 의한 PBL연수 프로그램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67

6) 이길수, 「웹기반 PBL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p.7-8

습효과는 물론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일본어학습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은 교사가 많지 않았지만 연수 참가자 중에는 일본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해외 연수 기회의 확대와,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 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실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현직교사와 경력교사들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과 알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와 인터넷 카페의 활용, 일본문화와 관련된 교육 매뉴얼과 자료를 보급, 대여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교재에 대한 불만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 교재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멀티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수, ICT를 이용한 교재와 수업자료 개발에 관한 연수, 좁은 교실에서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게임 수업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 다양한 교수법과 교재 연구가 필요하다.

교실수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수과정과 교육현장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의 연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제학습, 협의 및 토의, 사례발표, 협동학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원연수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연수프로그램은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원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연중 교육을 받게 한다면 교수법 터득에 많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현직교사들이 희망하는 교수법 등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또한 교수내용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실제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교육경험이 부족하거나 교수법에 자신이 없는 교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연수프로그램에서는 우수 교사를 초청하여 교사들에게 직접 시연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할란, 『일본어 학습자의 의식조사 연구』-4년제 대학의 일본어 학습자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제59집, 2006.
- _____, 『일본어 수업에 있어서의 문화교육의 필요성』-대학의 교양일본어 수업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제54집, 2005.
- _____, 『대학 일본어 학습자의 의식조사 연구』-일본어 학습동기와 일본·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제57집, 2006.
- 『日本語教育の学習環境と学習手段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国立国語研究所, 2004.
- 『NINA研究報告書』, -日韓の文化交流を深めるための日本語テレビ・ビデオ教材の研究と開発-, 総合研究開発機構, 2002.
- 이길수, 『웹기반 PBL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맹영하,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블랜드드 모형에 의한 PBL연수 프로그램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이장우, 『게임授業이 学習者에게 미치는 影響과 新学習者를 위한 教授方法에 関한 研究』, 『일어일문학』제24집, 2004.
- 佐藤綾, 최영숙, 高木裕子, 『한국 중등교육기관의 한국인 일본어교사의 실천능력』-교사 경험 5년 미만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 『일본어문학』제43집, 2008.

❖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Environment for Middle-School Japanese Teachers

- A Case Study of Training Course Participants in the Summer 1stClass for Middle School Teachers-

Kim, Hwal-ran

For this research, I conducted a survey on training course participants in the summer 1st class for middle school teachers in Kyung-ki province in 2009 in order to explore these participants' opinions about the training program and Japanese-language-teaching related meetings, their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textbook and class environment, an alternative textbook they wish to use, and ideas about education on Japanese culture.

According to this survey, these teachers regard films and television dramas as their students' primary areas of interest. The teachers also demonstrate their preference for listening practices using films, dramas, and animations. Television dramas are regarded as the media-text that they wish to utilize the most due to the fact that their students are frequent computer users who are able to watch Japanese dramas via subscription to various Internet sites. The teachers observe that their students' interests in particular dramas and their actors often inspire their desire to learn Japanese language.

On the issue of Japanese culture, the teachers offer opinions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teach courses on understanding authentic Japanese culture given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as well as the impossibility of providing courses on Japanese culture because of the school policies that focus on entrance exams. Their opinions include the lack of time to discuss Japanese culture because of the college-entrance-exam-focused class structure, the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lassroom environment (e.g., large number of students, lack of multi-media facilities), and the hope for the availability of videos related to publications and images on Japanese culture vis-à-vis the relatively easy access to photographs through the Internet search. They also comment on the need for 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and loans educational manuals and resources.

Teacher training programs aim at changing and improving the on-the-spot school education. Yet, the existing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are ineffective due to their lecture-oriented, cramming system, which results in little relevance to actual class environment. The survey includes a limited number of teachers who have received Japanese-language-teaching training, some of whom state that the language teaching training was not very helpful.

The majority of these teachers provide opinions about the need to expand overseas training opportunities and the necessity for periodical training programs to develop pedagogy that can be applied to an actual class environment. Furthermore, what is needed is a training program through which new teachers and more experienced teachers can exchange their know-how and useful information as well as teachers' society such as Internet cafés for the purpose of sharing information. In addition, training programs for the incorporation of multimedia use, development of texts and resources utilizing ICT, diverse teaching strategies such as a game play that provides entertaining learning experience even in a small classroom.

A stronger interconnection between training programs and actual teaching enviro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support effective classroom teach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 variety of teacher training systems that include tasks, discussions and debates, presentations on case studies, and collaborative learning in an effort to satisfy the teachers desire for diverse training courses.

Key Words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실환경, 일본문화, 교과서, 일본 드라마
Teacher training programs, education environment, class environment, Japanese culture, textbook, Japanese dramas

논문접수일: 2009. 11. 12.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

|| 부록 ||

2009년도 중등교원의 일본어 수업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 질문지의 대답은 무기명으로, 데이터는 통계적인 자료 분석에만 사용됩니다.

- F1 성별 1. 남 2. 여
- F2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기타_____
- F3 일본어교사 경력
1. 만 3년 2. 만 4년 3. 만 5년~6년 4. 만 7년~10년 5. 10년 이상 6. 기타
- F4 현재 근무지
1. 중학교 2. 고등학교
- F5 일본 방문 경험
1. 있다 2. 없다
- ※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의 방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대답 가능)
1. 여행 2. 업무 3. 연수 4. 단기 유학(6개월 정도)
5. 단기유학(6개월~1년) 6. 장기 유학(1년 이상) 7. 친지방문
8. 국제 교류 9. 워킹 홀리데이 10. 기타_____

■ 일본어 교육 관련 모임과 연수에 관해서

- Q1 현재 일본어 교육에 관련된 인터넷 카페(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Q2 현재 정기적으로 일본어 교육에 관한 학회, 연구회, 교사회 등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어떤 모임에 참가하는지 구체적인 모임 명을 말씀해주세요.

	학회, 연구회, 교사회 명
1	
2	
3	

Q3 일본어 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번 연수는 제외)

1. 있다 2. 없다

※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구체적인 연수 명을 적어주세요.

	연수회 명	주최
1		
2		
3		

※ 현재까지 연수를 받은 횟수는 몇 번 정도입니까? (이번 연수 제외)

1. 한 번도 없다 2. 1회~2회 3. 3회~4회 3. 5회 이상

※ 연수에 참가하고 나서 일본어 교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번 연수 제외)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그저 그렇다 3.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본어 교육 연수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 _____

■ 수업과 교재에 관해서

Q4 다음 보기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1. J-POP(일본 가요) 2. 일본 영화·드라마 3. 일본 만화·애니메이션

- 4. 일본 게임
- 5. 일본 연예인
- 6. 일본 패션
- 7. 일본 문학
- 8. 일본 관광지
- 9. 일본 전통문화
- 10. 일본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 11. 일본의 관혼상제
- 12. 일본 역사
- 13. 일본인의 의식주
- 14. 일본 정치·경제
- 15. 일본 전통 문화
- 16. 기타 _____

Q5 교사 여러분이 희망하는 일본어 수업관련 영상 교재를 선택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드라마
- 2. 애니메이션
- 3. 영화
- 4. 일본 가요 프로그램
- 5. 일본 뉴스
- 6. 일본 TV 버라이어티 쇼
- 7. 일본 광고(CM)
- 8. 다큐멘터리
- 9. 기타 _____

Q6 교사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일본어 수업을 선택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사진을 이용한 수업
- 2. 역할극(Role Play) · 단막극(Mini - Drama)
- 3. TV광고 등을 이용한 수업
- 4. 신문이나 잡지 기사 내용 독해 수업
- 5. J-POP(일본가요)으로 배우는 일본어
- 6. 일본인과의 인터뷰
- 7. Power Point를 사용한 수업
- 8.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 9. 게임을 이용한 수업
- 10.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대사 청취연습
- 11. 기타 _____

Q7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출판사 명 : _____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만족합니까?

- 1. 만족
- 2. 불만족

※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유 : _____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 만족합니까?

- 1. 만족
- 2. 불만족

※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유 : _____

1. 일본인 일본어 교사 2. 일본인 유학생 3. 일본인 기업인
4. 일본 관계부처 직원 5. 기타 _____

Q15 평소에 일본어로 대화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1. 자주 있다 2. 가끔 있다 3. 전혀 없다

※ 어떤 분들과 주로 일본어로 대화합니까?

: _____

Q16 현재 중·고등학교에서의 일본 문화 교육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